



나의 소원

이사장 이 기 혁

나는 개교 25 주년의 교지를 통해 우리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간략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제 나는 뜻깊은 개교 30 주년을 맞아 인성학원에 거는 나의 기대와 앞으로의 소원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모태적 신앙인이다. 나의 선친은 선교 초창기에 기독교에 입교하신 분이었고 보다 과감하신것은, 가산이라곤 집 한 채 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헌납하여 예배당을 건립하셨다. 그리고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두 살되던 해에 별세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청년과수로서 말할 수 없이 고독하게 지내셨다. 깊은 밤, 어린 나는 잠이 깊이 들었다가도 자주 깨게 되었다. 어머니의 울며 기도하시는 소리에 놀란 것이다. 그 기도는 마침내 어린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결심한 것이 아마도 어머니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는 어머니의 녹아지는 수고와 눈물의 기도 중에서 선교사가 설립한 선천을 신성학교에서 교육 받고 깊은 감화중에 졸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민족을 바로 잡아 고상하고 품격 높은 국민으로서 성화 시키려면, 기독교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운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후에 나는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일제시대에 나는 요시찰 목사 중의 한 사람으로 피로움을 당한적도 있었다. 1945 년 해방이 되자 나는 조국의 복음화 운동에 뜻을 두

고 이제는 참 크리스찬을 양성할 때며 그렇게 하려면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 어릴 때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교회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설립하여 많은 인재를 길러 낼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니, 우선 수 만평의 대지가 확보되었다. 이때가 바로 해방된 지 수개월 후인지라 소련군대가 이미 이북땅에 주둔하여 그들의 숙청사업을 실시할 즈음이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선착으로, 목사에게 이 기혁, 교회로는 이목사가 담임한 용암포 제일교회를 그 대상으로 숙청을 전개하였다. 1945년 10월 19일에 노동자와 농민등 4~5천을 동원시켜 “이 기혁 목사 타도”라는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이 기혁 목사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게 하니, 이에 군중은 대중심리에 호응, 고향을 지르면서 이목사의 집과 예배당을 에워쌌다. 나는 그때 때마침 먼 곳에 부흥회 인도로 떠나 있던 차라 잡힐 수 없었고, 예배당을 헐던 군중들은 끝내는 거리로 몰려 나가 목사 장로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대로 폭행, 검거하고 가옥을 파괴하니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었다. 이때 제일교회의 홍석황 장로는 폭도들이 가한 몽둥이에 끝내 순교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역사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배척하려 하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후일의 역사가 밝힐 것이나 공산당들의 숙청 실시의 첫 대상이, 교회로는 용암포 제일교회, 목사로는 이 기혁 그리고, 홍 석황 장로가 된 것이다. 내가 서울로 옮겨온 경로에는 이상한 환상이 있었다. 1947년 3월 모 교회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다. 첫날 새벽 기도회 때에 한 진실한 성도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7:20을 보라” 하는 동시에 그 성구외에 해석까지 들려왔다. “앞으로 한국은 큰 환란과 혼란을 당할텐데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든지 공산국가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될터이다. 기독교국가가 된다면 참 행복되고 만일 공산국가가 된다면 희망이 없다. 이 기혁 목사는 여기 있을 수 없다. 속히 월남하여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닌지라 이 말을 듣고도 무심히 넘겨 버렸다. 그러나, 이 성도는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독촉을 받는다고 1주일간 전달하기에 내 자신만의 고집은 순종이 아니리라고 생각되어져 본 교회 장로와 상의하여 상경하게 되었다.

내가 떠난 지 1주일도 못되어 목사 이 기혁을 잡으라는 수배령이 북한 전역에 내려졌다고 들려왔다. 월남한 나는 인천에 있는 친구를 방문 왔다가 의외에도 제일교회의 목사가 되어 오늘까지 36년을 지내오니 인천이 내게는 제 2

의 고향이 된 것이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데 세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전도요, 둘째는 교육이요, 세째는 봉사이다. 첫째의 전도로 수십 교회를 개척 혹은 분립 시켰고, 인성학원을 설립하여 진리와 참된 구원의 방법이 기독교임을 가르쳤다. 또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를 교회로 인도하자는 기독교정신의 일환으로 모자원을 세우기도 했다.

1962년 9월, 제 47회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됨으로 내평생소원이요 기도 제목인 “조국 복음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다. 월남할 때의 영음이 또 한번 생각 되어졌다. 내가 인성학원을 세운 것은 나의 공만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제일교회의 당회를 비롯한 하부에 이르기까지의 일심단결한 곤궁극복의 의지와 희망중에서의 성장이니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나는 목사로서 대표자요 책임자인가답에 이름이 나타났을 뿐이다. 나는 다만 목사로서 초지일관한 꿈과 소원이 있다. 나머지 짧은 세월을 두고 소원은?

우리민족이 영·혼·몸의 3요소가 균형 잡힌 삶의 거룩하고 품위 높은 국민이 되려면 철저한 복음적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마치 큰 농장을 경영하려고 좋은 묘종을 키우기 위하여 묘관을 장만하는 것처럼 참 행복된 국가의 이룩을 위해 위대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본다면 우리학원에도 대학이 있음직 하지 않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나라는 복 받고 형통하며, 적으면 적을수록 그 국가는 불행과 비극을 불러 들이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워왔다. 그러기에 나는 목사이요, 복음화 운동가로 또 인성의 설립자로서, 광대한 임야도 태울 수 있는 강렬한 진리의 불꽃을 발할 수 있는 인성대학이 속히 설립되어 이 민족과 제 3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기관이 되어 주길 소원하는 바이다. 우리 교육이 성서 중심의 신앙교육을 좇점 삼는 학원이 되자. 나는 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